

라오스 지렁이

홍 용, 김태흥¹

상주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, ¹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
생물자원과학부

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부에 위치하는 라오스에서 지렁이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는 1987년 Thai와 Samphon에 의해서 *Amyntas seponensis* 등 2속 5신종을 보고함으로써 시작되었다. 그리고 Thai와 Samphon은 *Pheretima* 속 3신종, *Metaphire* 속 2신종, *Amyntas* 속 12종, *Drawida* 속 1종 등 18신종을 기록하였다 (1988). 또한 1989년에는 *Pheretima* 속 5신종을 1990년에는 Luongphabang 지역에서 *Amyntas* 속 3신종을 포함해서 5신종을 보고하였다. Thai와 Samphon은 1991년에는 메콩강의 중간지점 주변부에서 (비엔티안)에서 31종의 종 목록과, 라오스 전국 21개 지점에서 채집한 종을 *Pheretima* 속 63종과 기타, 염주 위지렁이과 등에 속하는 5종을 각각 기록하였다. 하지만 이는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분류체계와는 다른바, 이에 Sims & Easton (1972), Easton (1979), Easton (1982) 등에 따라서 *Pheretima* 속 단일 속을 4속으로 체계화하는 등, 라오스 지렁이를 2목 6과 10속 69종으로 재정리하였다. 이들 종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렁이과 (Family Megascolecidae), *Amyntas* 속에 속하는 종류가 34종으로 전체의 49.3%, *Pheretima* 속이 21.7%, *Metaphire* 속이 13종으로 18.8%를 차지한다. 이들 3속의 비율이 전체의 89.8%를 차지하여 라오스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는 우점군이었으며, 또한 고유종의 비율은 38종으로 전체의 55.1%를 차지한다.